

기억없는 글쓰기의 운명

신인작가들의 장편소설을 읽고

한원균

문학평론가

작년에 한 문예지 신인상을 수상한 조정란의 《식빵 굽는 시간》에 대한 심사평 가운데 재미있는 대목이 있다. 그녀 작품의 특이점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주인공 강여진이 자신의 출생비밀을 알고서도 그 비밀에 매달리려는 커녕 오히려 그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건전제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 소설의 비범함이라고 한 심사위원은 말한다. 흔히 통속소설에서 출생의 비밀이란 운명을 바꾸는 중대사안으로 다루어졌다. 삶은 한순간에 달라지고 현재란 과거의 '나'를 찾기 위한 고단한 여정으로 그려진다. 아울러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선명하게 나누어지고, 과거에 대한 은폐와 개진의 욕망 사이의 갈등이 때로는 눈물을 자아내게도 한다. 과거란 무엇일까. 자기정체성의 밑뿌리를 형성했던 시간에 대한 기억은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문제일 것이다. 기억이 없는 삶이란 견디기 힘든 것일 수 있다.

과거와 단절된 현재의 글쓰기

최근, 등단한 지 오래되지 않은 작가들의 장편 몇 권을 읽으면서 입가에 맴도는 말은 '기억 없는 글쓰기'였다. 다가올 날에 대한 두려운 기다림이라든가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이나 숙명적 인연으로부터도 완전하게 단절된 현재, 특히 타인들의 삶과 자신을 전혀 매개되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려는 관점, 또한 지배적인 합 의 공동체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 등이 작품 속에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최인훈의 장편 《화두》에 이런 말이 나온다. "사람은 기억 때문에 슬프다. 세상은 흘러가도 기억은 남는다. 사람말고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이 시간이 흐르면 자기도 변화한다. 지난해 봄을 기억하는 나무는 없을 것이다.(...) 나와 나의 기억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내가 기억이다."(pp. 309-311) 그야말로 기억의 존재론이다.

자신이 어느 시점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의 드러냄이 곧 작가이고 소설의 육체성을 이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사란 보편체험에 가깝다는 사실일 것이다. 보편체험에 대한 남다른 관심, 혹은 자기 영혼의 문제를 대비시키는 글쓰기가 가져다주는 울림이란 문학사적인 맥락에서

다루어 볼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나에게 과거란 없다는 의식, 나는 단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의 현재란 쓰면서 형성되는 시간이라는 것, 나의 존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것이 곧 나의 현재가 된다는 사유방식이 이들 작가의 일련의 경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잠깐 언급했던 한 심사위원의 견해, 다시 말해 '전사 내동댕이치기'라는 모티프는 더 이상 비범하지 않게 된 것이다.

환상이나 환생을 소재로 한 문화적 기호들은 여전히 유행하는가. 김진의 《하늘로 가는 강》(문학동네)은 관심을 끌 만한 재미는 있지만 그 소재의 익숙함 때문인지 식상한 느낌을 주었으며, 강규의 두번째 장편 《베두

등단한 지 오래지 않은 작가들의 장편 몇권을 읽으며 맴도는 말은 '기억없는 글쓰기'였다. 지난날의 고통, 숙명적 인연에서 완전히 단절된 현재, 타인의 삶과 자신을 매개되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려는 관점 등이 작품 속에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원 찻집》(문학동네)이 보여준 환상적인 그림 역시 이질적 배경으로 감싸인 사랑이야기라는 점에서 새롭지 못했다. 각각 인도와 이집트라는 낯선 공간이, 여행에서 오는 기대감, 그 한없는 의명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는 조금 우둔한 필요가 있는가. 항상 생각해 오던 문제였다. 우둔함이란 몸의 논리를 쫓는다는 이야기와 가까이 있다. 작가적인 명민함은 이론적으로 정리된 세계관 자체에 있지 않고, 무표정한 듯한 얼굴로 일상의 구체적인 사물로 그 세계관을 전이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일정한 기간의 이론 수업으로 작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작가가 될 수 없듯이, 계획된 이론적 장치, 풍부한 육체적인 조형과정 없이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는 소설 역시 절대로 오래 남는



신인작가들의 작품 발표가 활발하다. 위쪽 왼쪽부터 조정란·강규·박청호·김진·김이태·박상연씨.

작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박청호의 《푸르고 흰 사각형의 등근》(한뫼)이라는 실험적 기법의 소설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주제의식은 '모든 지배적인 담론은 없다'는 논리이다. '나'와 타자들의 억압을 증충적인 서술방법을 통해 교묘히 배열하고 있는 이 작품의 정서적 울림이 크지 못하다는 느낌은 이 때문일 것이다. 방황하는 음악가들의 내면을 그리고 있는 김이태의 《전함 큐브릭》(고려원) 역시 가벼움에 대한 균형감각의 부재로 인해 깊은 공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구성에서 조금 미흡한 느낌이 있지만 비교적 새로운 소재를 통해 시선을 확대하고자 한 박상연의 《D.M.Z》(민음사)가 오히려 주목된다.

소비재로서 작품의 운명을 생각할 때

시내 서점에 나가서 신간을 구경하는 일이 요즘에는 별로 즐겁지 못하다. 소설읽기가 지나치게 삶을 쇠말화로 이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면 문학을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다. 소설이 그래도 시 읽기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은가라는 반문도 별 위로가 될 수 없다. 한때 신경숙의 과거이야기 읽기에 지쳐가면서도 그녀를 쉽게 떠날 수 없다는 말을 사석에서 한 적이 있다. 김형경의 《세월》이 주는 흡인력, 그리고 비교적 젊은 세대인 차현숙의 《블루 버터플라이》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에서 느껴지는 안타까움 정도가 그래도 여전히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정도가 아닐까.

소설만큼 자본의 위력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문화장치도 없다. 영상문화가 극도로 발달해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문자매체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영상매체에 탐닉하는 자신들을 혹 문화의 상대적 빈곤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희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소설읽기는 어쩌면 그 결핍감을 충족하려는 의도와 한쪽을 이루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곤 한다.

한편으로 등단만 하면 곧 장편으로 뛰어드는 신인들의 폐기가 작가의 생명력을 오히려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작가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자기소멸적 충동이 자본의 교묘한 책략임을 그들은 진정 깊이 있게 느끼고 있는지, 소비재로서의 역할을 끝낸 작품이 처해지는 운명 또한 어떠한지 물어야 할 시점은 아닌가.

과거란 없다는 도저한 선언은 곧 불안한 실존에 대한 자기확인고 같다.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기계적인 반영이 소설의 깊이를 더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타당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소설적 성취, 즉 보이지 않지만 인식할 수 있는 욕망의 가능태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도 부인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오늘의 작가들은 직면한 듯하다. 그 딜레마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소설적 모색이 더 시급한 것은 아닐까. 역량 있는 신인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듯하다. ❖